

전주대 전수련 졸업생, 와계닝겐 대학원 진학

전주대학교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전수련 졸업생(17학번)이 네덜란드 와계닝겐대학 및 연구소(WUR)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허가와 더불어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의 오렌지 톨립 장학금(OTS)도 받는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와계닝겐대학및연구소(WUR)는 1918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유일한 농업대학으로, DLO 국가연구소와 병합해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됐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 학문 분야별 순위에서 2010년부터 농업대학 세계 1위 대학이다.

이에 따르면 전수련 졸업생은 졸업 후 (WUR)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네덜란드 와계닝겐 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했다.

이정상 지도교수는 "국내의 많은 대학과 기관들이 식품 및 농업 분야 모델링과 벤치마킹하는 곳이 네덜란드 와계닝겐대학 및 연구소(WUR)인데, 그런 곳에 제자가 입학하게 돼 정말 자랑스럽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리빙랩, 캡스톤디자인 등의 실무형 교과과정을 통해 얻어낸 경험학습의 결과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주대 모든 학생이 알고 동기부여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랑컴퍼니, 전주 장애인단체에 마스크 전달

전주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 '랑컴퍼니'(대표 공봉선)가 전주시 장애인들을 위해 마스크 4만15,000장을 전북장애인복지재단 연구소,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양욱)에게 전달했다.

'랑컴퍼니' 회사는 마스크, 의류제조, 필터류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사랑의 기부를 하고 있다.

김양욱 회장은 "장애인들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게 해준 랑컴퍼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전북도 약사회, 남원 보건소에 감사 전달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0일 도 약사회와 시 약사회가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간식과 6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 1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휴일에도 방역을 비롯한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사회는 2년 넘게 지속된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직원들 농촌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가 직원들의 농촌일손돕기 지원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인월면 구인월 마을에 위치한 사과농장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직원들은 농가주요 작업 요령 시범에 따라 서투르지만 사과 열매를 수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매면과 관광과, 남원농협 사매지점 직원 20여명은 지난 20일, 고령화에 따른 농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사매면 관내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복숭아 봉지 싸기 작업"을 도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50회 어버이날' 도지사 포상

혁신동 박주원 씨, 효행상 수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거주하는 박주원(56) 씨가 '제50회 어버이날' 전라북도지사 포상 효행상을 수상했다.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박 씨는 28년 간 시아버지를 모시며 요양 및 재활병원 간병을 하고 모친 또한 지극정성으로 모셔왔으며, 형제간의 우애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이러한 효행은 전주 시민의 모범이 돼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공헌과 동 주민 자치에 기여해왔다.

박주원 씨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어머니를 모셨을 뿐인데 주위에서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주위 어른들께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순 혁신동장은 "사회의 발전으로 가족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며 효를 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혁신동에서 효를 실천하는 분이 효행상을 수상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제3기 시민참여단 간담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의 시민참여단 활동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인 자리로, 그동안 시민참여단은 공공시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시민토론회 및 각종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파트너로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하며, 남원시는 2013년 처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018년 재 지정되었으며, 내년에 개선된 제도에 따라 신규협약 신청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점숙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다"면서 "시민참여단의 활발한 활동이 '하루하루'는 시민, 행복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거라 믿는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수병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자선 음악회 개최

전주 예수병원은 지난 20일 오후 7시 예수병원 4층 예배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관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캠페인'에 동참하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예수병원 임직원과 환우들이 낸 음악회 수익금은 소속 선교단체 Global Mission Society(예장합동, 대표 김병범 선교사), 루마니아 봉사단체 Emaus Center, 우크라이나 봉사단체 Embrace로 나누어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병범 선교사는 지난 25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봉사 활동을 하며 현재는 루마니아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루마니아에서 필요 물품을 구입해 위함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로 전달하며 고난에 앞장서 돕는 김병범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정선범 목사(예수병원 원목실장)와 김윤환 과장(예수병원 영상의학과)의 작은 실천이 차별 없는 사랑의 선율과 거룩한 목소리의 나눔으로 변화됐다.



덕진 적십자봉사회, 아중호수 환경정비

적십자봉사회 전주지역지구협의회(회장 김재식)는 지난 19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구 아중호수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인후양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이희택)의 주도로 진행된 이날 환경정비에서 회원들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중호수 산책길과 그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김재식 적십자봉사회 덕진협의회장은 "아중호수가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오래 애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깨끗이 유지하는 환경 지키미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날 공연에는 예수병원의 대표적인 제이크루팀과 관원악팀을 비롯해 예수병원 세시봉팀, 인턴 의사팀 등 예수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팀뿐만 아니라 '리콜레토' 공연에서 쵸반니 역을 맡은 소프라노 정수빈도 참여해 마음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뜻깊은 자선음악회였다. /김윤상 기자



한전 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에 가전제품 비용 지원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김영환, 전력지부위원장 황형연)는 지난 20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송전선로 경과 지역 인근 동산동 소재 지역아동센터 5개소(동산 전광, 프란치스코, 화북, 신나는)에 가전제품 교체 비용 등 150만 원을 지원했다.

동산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한전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노·사대표와 5개 지역아동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지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전 전북본부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버브펀드'를 본사의 활동 재원으로 삼아 16개의 사회봉사단을 운영해왔다. 올해 현재까지 한전 전북본부 내 16개의 사회봉사단은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품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39건의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80억 기부 김정욱 이사장 초청 감사 전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근 개인 기부 역사상 가장 많은 80억 원을 본교에 기부한 (제)김정욱경영정신문화재단 학재단 김정욱 이사장을 대학에 초청, 기념식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20년 전북대 학생 장학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지난 3월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60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동원 총장과 김관우 발전지원재단 이사장, 김정욱장학기금 운영위원회, 그리고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함께했다.

한편 김정욱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직접 김 이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훈훈한 시간도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대한적십자 정음지구협의회, 사랑의 물품 기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음지구협의회(회장 이경자)는 지난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정음시청에 방문해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500만원 상당의 이불로 지역 내 어려운 저소득 이웃 100세대에 소중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경자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후원 물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가 활성화된 행복한 정음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인월면,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외식상품권 전달

남원시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이정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18가구 60명에게 인월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외식상품권(1인당 25,000원 총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월면 식당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외식상품권"을 제작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직원, 농촌 일손돕기 추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실장 송성용) 직원들은 지난 20일 부족한 농촌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봉동 소재 딸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농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수 및 딸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벌 개체수 감소로 인한 수분부족 저조로 딸기 작황이 좋지 않아 삼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한 직원들은 딸기 모둠 제거 작업 등의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곽태기 기자